

제18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시찰 상보

-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주요 어촌어항 견학 -

제 18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38명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9박 10일간의 해외 선진 어촌어항 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조사단은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시즈오카현 아이즈 어항, 모치무네 어항과 유럽의 벨기에 뉴포트(Nieuwport)항, 네덜란드 에이마우트(Ijmuiden)항, 이탈리아 살레노(Salerno)항 등을 견학·시찰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한 이 시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어촌어항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기술용역회사 임직원 등 어촌어항 관련 각계 각종 인사가 참여, 선진 어촌어항을 현지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식견을 높였다. 이와함께 시찰국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호를 증진했다.



▲ 미사키어항 - 수중유람선을 운영하여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 아이즈 어항 - 2003년도 양륙량이 일본 전국 1위이고 양륙금액은 전국 제2위를 자랑하고 있는 아이즈 어항. 사진은 아이즈 어항에 정박한 어선들.



▲ 모치무네항 - 몇년 전부터 어항이용조정사업과 해양환경정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 놀이터.



▲ 뉴포트항 - 썩지 않는 나무를 이용한 접안시설을 구축하고 있다.(스테인리스 볼팅)



▲ 에이마우트항 - 네덜란드 냉동산업의 80%를 담당하는 냉동창고가 있다. 사진은 어항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Frans Rivo 해양연구기관 부소장.



▲ 살레노항 - 어선 이동에 하역레일을 이용하고 있다.